

2014

박근혜 대통령 캐나다 국빈 방문기



2014

박근혜 대통령
캐나다 국빈 방문기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100년의 문을 열다

FTA 체결 통해 경제적 공동 이익 및 평화번영 등 약속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를 국빈 방문했다.

1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가진 캐나다는 올해로 정식수교 51년을 맞는 국가.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FTA 체결 및 정상 간 공동 선언 채택을 이루어 냈으므로써 양국이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새로운 외교의 시대를 열었다.

CANADA

CONTENTS

04 방문 의의
16 경제협력

06 캐나다 방문 A to Z
22 기타 일정
08 정상외교
28 성과와 선물



**FTA 체결 및 공동 선언 채택
새로운 협력 관계 전환 계기**

박근혜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캐나다 방문에서 그간 준비해 왔던 한국-캐나다 FTA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 선언을 채택하여 양국 간 비즈니스 및 문화 협력 관계에 있어서 더욱 발전한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창조경제 협력, 교역 다변화, FTA 활용을 극대화하여 더욱 탄탄한
양국 간의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9월 20일

- 캐나다 오타와 도착
- 동포 만찬 간담회

9월 21일

- 공식 환영식
- 총독 내외 환담
- 총독 내외 주최 국빈 만찬

9월 22일

- 기념 식수
- 전쟁기념비 헌화
- 상 · 하원 지도부와 인사 교환 및 의회 방명록 서명
- 단독 정상회담
- 확대 정상회담 겸 오찬
- 협정 서명식
- 공동 기자회견
- 한 · 캐나다 비즈니스 심포지엄
- 캐나다 오타와 출발



정상외교 SUMMIT DIPLOMACY

지난 100년의 우정을 바탕으로 다가올 100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준비한다

캐나다는 입헌군주국으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연방공용어이며 지방분권적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과는 19세기 말 캐나다인 제임스 스코필드 선교사가 한국에 방문하여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으로 외국인 최초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등 100년이 넘는 양국 간의 교류를 다져 왔고, 올해로 정식수교 51주년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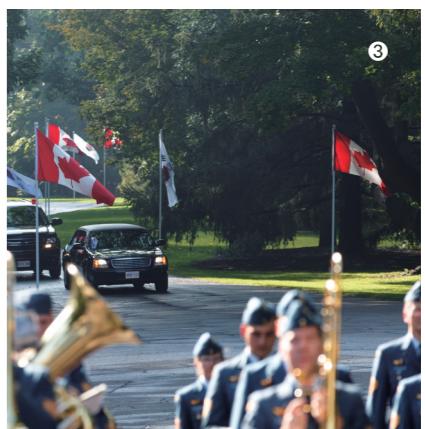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문 중 캐나다 하퍼 총리와 3번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캐나다 FTA를 체결하여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 장을 열었다.

양국 간 미래 건설의 토대 마련한 존스톤 캐나다 총독과의 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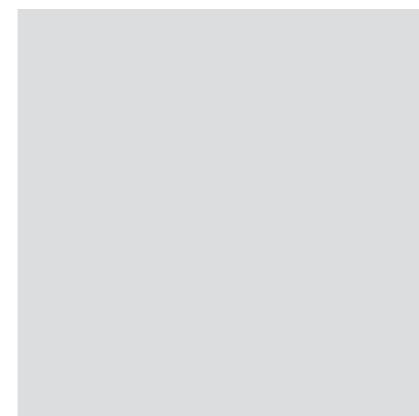
캐나다의 총독은 영국에서 친임하는 캐나다의 상징적 군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비드 존스톤 총독 내외와 한·캐나다 양국 정부 대표단, 우리 동포, 6·25 참전용사, 한글학교 학생 등이 동석한 공식 환영식은 총독관저에서 진행되었다. 존스톤 총독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따뜻하고 세심한 환대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양국 간의 오랜 역사가 이후에도 펼쳐 질 미래 건설을 위한 훌륭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번 캐나다 방문이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국제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날, 오랜 양국관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의 기념식수가 총독관저에서 있었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금번 캐나다 방문이 양국 간의 우정을 다지고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양국이 상호번영은 물론 국제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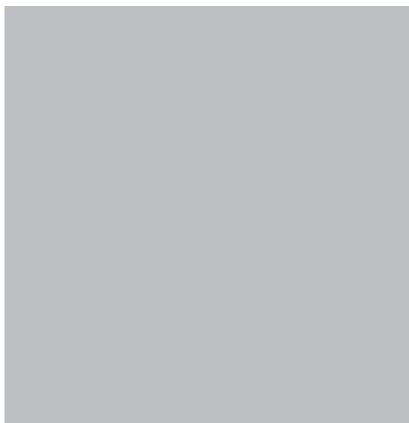
① ② ③ 9월 21일 – 공식 환영식
④ ⑤ 9월 21일 – 총독 내외 환담



공식 환영식이 개최된 총독 관저(Rideau Hall)는 1838년 개인 저택으로 건축되었다가, 1857년 캐나다 초대 총독 몽크(Monck) 경의 임시 관저로 사용된 이후 1868년 캐나다 정부가 매입, 역대 캐나다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기간 중 총독 관저에 머물렀다.



- ⑥ ⑦ ⑨ 9월 21일 – 총독 내외 환담
- ⑧ 9월 21일 – 공식 환영식
- ⑩ 9월 21일 – 기념 식수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함께한 오랜 역사가 향후 양국의 협력 강화와 미래 건설을 위한 토대”

●데이비드 존스톤 총독, 공식 환영식 환영사 중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우정을 다지고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공식 환영식 답사 중



“특별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협력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 한국-캐나다 FTA 서명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2일 캐나다의 스티브 하퍼 총리와 함께 단독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캐나다 간 FTA 등 협정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하퍼 총리는 양국은 7대 상품교역국으로 양국의 교역액은 100억 달러가 넘었고 이 협정을 통해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캐나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최초로 FTA를 체결한 동반국가인 대한민국과의 인적 교류 등의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1993년 이후 설정되었던 ‘특별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키기로 다짐했다. 하퍼 총리는 평화와 안보를 실현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에서도 공동의 이해 관계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FTA 효과를 기술협력, 인적 교류, 민간 경제협력 등 제반 분야로 파급시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와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에 공동 보조를 취함으로써 세계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APEC 한-캐나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스티브 하퍼 캐나다 총리를 만나 ● 진정성과 상호 호혜에 기초한 협상 추진, 창의적인 해법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여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 하퍼 총리는 금번 확대 정상회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협상이 타결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협상 체결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헌과 노력에 진심 어린 사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하퍼 총리와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북극, 인적 교류,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등 동북아 지역 정세 및 인권, 개발 협력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이후 새로운 50년의 지평을 열어 가는 시점에 이루어진 이번 캐나다 국빈 방문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① 9월 22일 – 단독 정상회담
- ② ③ 9월 21일 총독 내외 주최 국빈 만찬

SUMMIT DIPLOMACY
정상외교



ECONOMY COOPERATION
경제협력



OTHER SCHEDULE
기타 일정



경제협력 ECONOMY COOPERATION

경제대국 캐나다와 함께 글로벌 창조경제의 시대로

캐나다는 세계에서 2번째로 넓은 국토면적과 세계 10위 수준인 1조 8,250억 달러의 GDP를 기록(2013년 기준)하고 있는 경제대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거둔 경제 분야 최대의 성과는 협상 개시 9년 만에 정식 서명에 이른 한-캐나다 FTA이다. 한국-캐나다 간 FTA는 2005년 7월 협상 개시 후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자리를 통해 논의되었으나 진전이 되지 않으면서 2009년 4월 중단되었다. 이후 5년 8개월 만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협상이 시작되었고, 2014년 3월 타결 이후 이번 순방에서 정식 서명과 함께 체결되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긴 협상시간을 소요한 한-캐나다 간 FTA는 앞으로 글로벌 창조경제의 시대를 열고 양국 간 교역 다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 기술 협력 교류 MOU 체결과 2차전지 분야에서 캐나다 원천기술과 한국 응용 기술 간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FTA와 에너지기술 MOU체결 보다 강력한 협력 관계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로 수교 5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쏟았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FTA는 양국 공히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 경제 대부분의 분야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10년 후 GDP 0.04%, 후생 5.1억 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 한-캐나다 FTA 주요 내용

- 캐나다 : 품목수 93.2%, 수입액 95.9%(3년 내 관세 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7%(10년 내까지 포함)
- 대한민국 : 품목수 86.1%, 수입액 92.3%(3년 내 관세 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10년 내까지 포함)



● FTA 정식 서명의 의미

12번째로 타결된 FTA로 경제영토가 GDP 대비 59.8%로 확대

- ① 한-미 FTA에 이어 한-캐 FTA 타결로 '한미-한캐-NAFTA' 간 시너지 효과 제고
 - ASEAN, 유럽에 이어 북미 시장까지 주요 경제권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 확충
 - 14대 경제국 중 9개국과 FTA 체결(미체결국 :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 ② 캐나다의 첫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FTA,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 확보
 - 주요 경쟁품목(관세율) : 자동차(6.1%), 자동차 부품(6%), 세탁기/냉장고(8%)
- ③ 자동차 위주의 수출(현재 42.8%)이 보다 다변화되는 계기 마련
 - 예상 수혜품목(관세율) : 화장품(6.5%), PVC 바닥재(6.5%), 양말(15%), 라면류(최대11%)
- ④ 캐나다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현재 61억 달러) : 캐나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유일 FTA국, 한국은 캐나다 기업의 대 아시아 진출 교두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캐나다 기업의 투자 확대 기대

● 국내 보완대책

- ① FTA 협상 결과,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 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 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 부과 등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
- ②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 예상 농축산업 생산 감소액 연 320억 원을 감안한 2.1조 원의 국내 보완대책^①을 마련, 농축산업 경쟁력을 향상, 미래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
 - 축산시설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 (보리, 콩 등 재배업) 건조/저장시설 확충, 생산 기계화

한-캐나다 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경제성과

한국과 캐나다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 방문을 통해 △공동 성명, △2개의 협정(FTA, 항공운송), △다양한 MOU(에너지기술, 과학, 산업기술, 무역재보험 등) 체결 등의 경제적 성과를 도출했다.

● 상호 강점을 가진 기술 교류

- ① 셰일/오일샌드 : 캐나다는 우리에 비해 △셰일가스 분야는 4~6년, △오일샌드 분야는 2~3년 기술이 앞선 상황이며, 우리는 태양광, ESS 등 청정에너지 기술 노하우가 강점 ⇒ 우리가 육성 중인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으로부터, 캐나다 측이 앞선 셰일가스/오일샌드 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여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기술평가원과 CanmetEnergy 간 MOU 추진
- ② 2차전지 : 캐나다 측은 2차전지 소재 원천기술을 보유 중인 반면, 우리는 2차전지 제조기술에는 강점(소재 국산화율은 51% 수준에 불과) ⇒ 캐나다 측 소재 원천기술과 우리 강점인 제조기술을 결합, 차세대 2차전지(리튬 폴리머)^② 개발을 추진하고 '소재 국산화율' 제고 추진(전자부품원-하이드로 퀘백 간 MOU)

^① 한-호주/한-캐나다 FTA 통합 보완대책

^② 기존 2차전지(리튬이온 전지) 대비 충전량(기존 대비 160%)과 안전성이 강화

③ 마이크로그리드 : 한전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캐나다 배전 시스템에 실증 점검, 북미지역에서의 실증성과를 축적, 북미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한전-파워스트림 간 MOU)

④ 양자융합기술 : 나노양자³⁾융합기술 개발 협력 확대(KIST-워털루대 양자컴퓨터연구소 간 MOU)

● 캐나다 고유의 지리적·제도적 강점 감안한 협력사업

① 북극 :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북극연안국, 북극이사회 의장국이며, 북극연구기지도 건설 중 ⇒ △캐나다의 북극기지 공동 활용, △캐나다 북극지역 광물자원 공동 탐사(지질연구기관 간 MOU)

② 산림 : 캐나다는 국토의 41.8%가 산림으로, 산림 보호 등 산림정책 선두국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휴양/교육/치유 분야 캐나다 측 노하우 공유 및 인력 교류 추진(산림청-천연자원부 간 MOU)

③ 인력 양성 : 캐나다는 산학 협력 인력 인턴십 프로그램 선두국(카이스트-워털루대 간 MOU) ⇒ 우리 학생을 캐나다 산학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해외 진출 지원

● 기업의 FTA 활용 지원

① 캐나다 기업과의 인적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2003년 이후 중단된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재개 합의

② 캐나다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캐나다 시장 개척 로드쇼(9.23~24, 토론토)'를 개최



① ② ③ ④ 9월 22일 - 협정 서명식

³⁾국미세 영역의 특성을 활용한 기술로 양자 센서·암호통·컴퓨터 개발에 적용



우정의 기반 위에 쌓을 양국의 밝은 미래 한국-캐나다 비즈니스 심포지엄

박근혜 대통령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양국의 기업인들을 환영하고, “캐나다와 쌓아 온 그동안의 우정이 무엇보다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양국의 활발한 교류에 기쁨과 기대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아 양 국민의 창의력이 결합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가 풍성하게 만들어져 세계 시장을 주도하게 되기를 기원했다. 또 한-캐나다 간 교역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003년 중단되었던 민간 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 재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캐나다 간 FTA와 다양한 MOU 등이 캐나다 기업인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캐나다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그동안 쌓아 온 우정의 기반 위에 FTA를 더해서 양국 관계가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를 기대하며, 창조경제 협력과 교역 다변화,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캐나다 비즈니스 심포지엄 중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

① ② 9월 20일 – 동포 만찬 간담회



“특유의 근면성과 도전정신으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동포 간담회 중

삶의 터전 가꾸고 노력한 동포들의 노력을 치하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캐나다 국빈 방문의 첫 번째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캐나다의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 의원, 한인 최초로 캐나다 장군이 된 정환석 장군,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백신을 개발해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던 강칠용 교수 등 약 210명의 캐나다 동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고 노력하는 동포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모국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 발전, 젊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인 차세대 포럼 및 차세대 멘토십 행사 등의 지원사업,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및 재외공관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시행을 통한 동포사회 지원, 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전쟁기념비 헌화

박근혜 대통령은 6.25 당시 3대 참전국인 캐나다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캐나다는 6.25 전쟁에 2만 6,791명을 파병하였고, 이중 516명이 전사했다. 현재 생존 참전용사는 약 9,000명에 이른다.



상 · 하원 지도부와 인사 교환 및 의회 방명록 서명



- ① ② ③ ④ 9월 22일 – 전쟁기념비 헌화
⑤ ⑥ 9월 22일 – 상 · 하원 지도부와 인사 교환 및
의회 방명록 서명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출범시킨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서명

박근혜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번영, 안보 및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지속되기 위해 튼튼한 경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박 대통령은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MOU 체결에도 앞장서 추후 이어질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창조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관계 강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공동 선언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캐나다 FTA

두 정상은 자유무역협정 서명을 축하하며 태평양을 가로지른 양국 간 교역·투자관계의 강화와 번영의 증대, 일자리 및 기회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로 평가했다. 또한, 이번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상호의지를 재확인했다.

2. 전략적 동반자 관계

두 정상은 최근 양국 관계의 활발한 발전을 환영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킬 시기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 따라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 및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자원 ▲과학기술 및 혁신 ▲북극 연구개발 분야를 포함해, 공동의 관심사에서 보다 공고한 관계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범세계 및 지역 이슈에서 광범위한 교류와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3. 한반도

박근혜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한 포기와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을 지지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4. 동북아

두 정상은 동북아시아에서 신뢰 구축의 수단으로서, 역내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하퍼 총리는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한 박 대통령의 최근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5. 국제 협력

박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가 많은 글로벌 이슈들과 관련한 유사 입장으로서 지역 및 범세계적인 도전과제들에 긴밀히 공조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UN, APEC, G20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6. 인적 교류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가 국민 간의 교류가 양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캐나다인들의 지원과 희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공동 선언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근거한 한국과 캐나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것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보다 긴밀한 양국 관계가 기대된다.

캐나다 방문 선물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상이 한국을 방문할 때면 선물을 증정하거나 받는다. 일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대통령 선물은 정상 간의 인간적 교감을 통해 유대 관계를 강화하며, 대통령 재임기간 중 외교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대리석 북극곰 조각상(데이비드 존스톤 총독)



모직 담요(스티븐 하퍼 총리)

2014

박근혜 대통령 캐나다 국빈 방문기

2014

박근혜 대통령
캐나다 국빈 방문기
